

# 보도자료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 희망 일시	배포 즉시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 등
	기획처 홍보팀 880-5054, 9072 <a href="mailto:snupr2@snu.ac.kr">snupr2@snu.ac.kr</a>

배포일: 2025.2.26.(수)

## 서울대, 제79회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제79회 전기 학위수여식을 2025년 2월 26일(수)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224명, 석사 1,841명, 박사 887명 총 4,952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한다. <서울대학교 공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용기’의 덕목과 ‘함께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 강조하였다. 유 총장은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약을 거부하는 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의지의 바탕에는 모두 용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총장은 “지금까지 이룬 성취 가운데 자기 자신만의 노력이나 역량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자문해보면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개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지평에서만 가능하다”며 함께 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한센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40여년간 헌신하며 평생을 의료 약자와 동행해온 김인권 원장(서울에스병원, 전 여수애양병원 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1975년 졸업)이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최선이라는 오만을 경계하고,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지혜의 의미를 제시할 예정이다. <축사: 별첨3> 김원장은 1980년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1983년 한센인 전문병원인 여수 애양병원으로 옮겨, 한센병 치료는 물론 소아마비 환자 등 의료 약자와 함께 하는 삶을 2019년까지 이어갔다.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는 청소년 멘토링, 외국인 학생 대상 봉사 등 재학 기간 동안 공헌활동을 지속해온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장세원씨가 선정되었다.

□ 주요 식순

-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상장 수여(성적 우수, 리더십상)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 졸업생 대표 인사, 축사(김인권 서울에스병원장)
- 축가, 교가제창 등

## 【첨부1】 제79회 전기 학위수여식사(총장)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박사, 석사, 학사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면 여러분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한 인생의 항로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지만,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의 성취를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마음껏 졸업을 자축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혼란의 시기에 학부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해 긴 시간을 보냈을 줄로 압니다. 동료나 교수와 원활하게 교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적지 않으리라 짐작합니다. 수업과 연구를 비롯한 학내 주요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적응해나가며 극히 제한된 가능성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긴 터널을 통과해 나온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터득한 지혜와 역량은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손을 잡아 준 소중한 분들에게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중간 매듭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이 쌓아온 축적과 성장의 시간을 성찰해보는 일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도약하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덕목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기라는 덕목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시작은 언제나 누군가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용기에 대해 말하기가 머쓱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듯합니다. 용기보다는 ‘위험 회피’ 나 ‘생존’ 이 일상적 선택을 좌우하는 잣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정신’ 이라 할 만한 가치를 공유하기 어려워진 우리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내면의 용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어진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제약을 거부하는 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의지의 바탕에는 모두 용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돌진하는 태도를 용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용기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섬세한 판단을 전제합니다. 무엇보다 용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내려진 선택의 결과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함과 짝을 이룹니다. 용기가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희비가 엇갈

리는 삶의 과정을 인내하고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너무 애석해하지는 마십시오. 열심히 고민하고 성실히 준비하되, 단호히 판단하고 의연하게 대응하십시오.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의 노력은 그 자체가 목적인 인간 고유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함께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타인과 사회는 그저 ‘나’라는 개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내 존재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성취 가운데 자기 자신만의 노력이나 역량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 자문해보십시오.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지평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라는 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취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정합성을 가질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에 비추어 삶의 궤적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가 모일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활력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졸업생 여러분!

급속한 시대 변화와 나라 안팎의 격심한 혼란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 있는 지성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양심의 힘을 요구합니다. 위기가 심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여러분의 고민이 그만큼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졸업은 학교를 떠나는 일인 동시에 비로소 학교로 돌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졸업생으로서 여러분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체성을 새로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인의 자긍심을 마음에 품고 용기 있고 다부지게, 그러나 언제나 옆 사람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김인권 원장님께서 ‘용기’와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깊이 체화하고 실천해오신 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머무는 것 또한 커다란 용기임을 알려주신 김 원장님께 존

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은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에 터를 잡고 종합화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개교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국가와 사회, 인류의 미래를 열기 위한 서울대학교의 노력이 한층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문공동체’로서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융합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교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앞날에 크고 작은 성취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총장 유흥립

## 【첨부2】 축사(김종섭 총동창회장)

사랑하는 후배님이자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치열한 노력 끝에 학사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총동창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45만 서울대 동문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유흥립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졸업생들이 그동안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시고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셨습니다.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졸업생 부모님, 가족, 친지 여러분,  
귀한 자녀들을 우리 서울대학교에 맡겨 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서울대에서 받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스승님이 전수해 준 삶의 지혜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물론,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굳건하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은 여러분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고 작은 혜택을 받은 징표이기에 다른 대학의 졸업장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졸업장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각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서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문들에게 ‘서울대인은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인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는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어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해서 소외계층을 돕고, 저개발국가의 가난 극복을 위한 모교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도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인재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제조업을 해오면서 바이어들에게 기술적인 설명에 앞서 “우리 제품은 복이 많아요”라고 말하고 상담에 들어가 성공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관악캠퍼스에서 학문과 지성을 닦은 졸업생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큰 바위 능선으로 연결된 웅장한 관악산 산세가 여러분의 복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둘러싸 보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주변으로부터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만 마시고, 더 큰 복을 지어서 다시 주변에 나누어주는 서울대인이 되기 바랍니다.

갓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이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가신다면 불굴의 용기로 계속 헤쳐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의 특권은 과감한 도전에 있습니다. 저도 맨손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여 사업가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도전 과정에서 실의에 빠지게 될 때는 한강 남쪽에 우뚝 솟은 관악산을 바라보세요. 그 기슭에 자리 잡은 배움의 요람인 모교에서 체득한 지혜를 되살려 보시면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앞으로 45만 동문들이 연대하여 졸업생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대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담아내는 큰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첨부3】 축사(김인권 서울에스병원 원장)

졸업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역시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뒷받침하여 이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노력과 운이 따라주어서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런 졸업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또 아울러 평범한 졸업생인 저를 이런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대학당국과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69년 의예과에 입학하여 1975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인권입니다. 돌이켜보면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 자리는 그냥 그런 평범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는 전통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의 인식이 팽배하여 학생들에게 그리 인기가 없었고 축사를 하는 대통령께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는 1975년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축사를 했고 학생들의 야유는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씩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으나 그 후로는 자체 행사가 되어 총장님께서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대 출신의 각계에서 성공한 저명인사들이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와 같은 일반 평범한 졸업생의 차례가 되어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대 졸업식 축사의 변천만 봐도 우리나라의 의식의 발전을 보는 것 같아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저는 197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0년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군의관이 되는 줄 알았으나 그때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겨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가 되어 소록도병원에 근무하였습니다. 소록도는 1977년 제가 전

공의 3년 차일 때 6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의촌 해소 방침 중 하나로 전공의 과정 중인 의사는 나라가 지정하는 무의촌에 6개월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때 그 규정 때문에 저는 한센병 환자들의 병원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은 졸업 후 교수가 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다행인 것은 제가 마칠 무렵 많은 대학 병원이 새로 생겨 좋은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선배들의 권유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서 한센 환자들에게 헌신하는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의 삶을 보며 의사의 길이 교직만 아니고 이런 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직에 있으면서 의료의 신지식을 연구하고 공부해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또 이런 신지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의료로 그런 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소록도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학교수의 길은 서로 경쟁하는 자리였고 나 아니라도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소록도나 한센병 치료를 위한 의료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절실하게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나에게서 더 의미 있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양원은 우리나라에 처음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1909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한센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그 당시 정형외과 의사인 토플 선교사가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센병 환자 치료와 또 소아마비 환자 및 일반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병원이었으나 의료진은 토플 선교사와 한국인 외과 의사가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토플 선교사는 1981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어서 더욱이 저를 애양원으로 오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수많은 한센병 환자와 소아마비 환자 및 장애 환자가 병원에 가득하여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곳에 올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플 선생이 미국으로 귀국한 1981년 1년 동안은 소록도와 애양원을 1주일씩 교대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1983년 소록도 근무가 끝나고 여수의 애양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애양원은 토플 선교사가 귀국한 뒤 한국인 외과 의사가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분



은 저에게 병원 사정 상 다른 곳보다 월급은 많이 줄 수 없어도 내가 원하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네 마음대로 경감해 주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애양원에서 의사 생활이 내 이상에 맞는 의사의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미국 장로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병원 수입만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전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고 그 많은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서 언제나 밤늦게까지 진료하고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치료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에 힘든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많은 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한 덕에 병원 재정은 원조를 받지 않아도 운영될 만큼 호전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서 수술 실기를 배우기 위해 이 병원에 취직하려는 젊은 의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전임 원장께서 정년하여 저는 아무 경쟁 없이 원장이 되었습니다. 또 병원 경영이 호전이 되어 미국 남장로교회에 더 이상 원조가 필요치 않다고 통고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미국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의료가 필요한 나라에 인공관절 수술을 무료로 시술해 주기 위해 중국 연변을 위시하여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또 요청에 의하여 케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라는 선입관을 없애기 위해 조경과 환경을 개선하였고 낙후된 시설을 증축 신축하였고 설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희망을 가지고 동참해준 것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지만 그 환자들은 오히려 제게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를 알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애양원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척추결핵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환자의 치료는 복강을 앞으로 제치고 척추의 앞쪽으로 들어가 결핵으로 발생한 고름을 배농하고 결핵으로 파괴된 뼈를 긁어내고 뼈이식을 하는 것이 표준적인 수술 치료입니다. 추체의 앞에는 복부 대동맥이 있고 각 척추뼈에는 대동맥에서 분지된 늑간동맥이 있어서 자칫 그 동맥이 터지면 많은 수혈이 필요하고 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큰 수술입니다. 그 환자는 멀리서 왔고 다른 병원을 전전하여 우리 병원까지 왔습니다. 또 그런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혈이 필요하다

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죽으면 죽었지 수혈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종교적 신념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당연히 수혈을 하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도 ‘그 수술이 최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최선이 있으면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면서 차선의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지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최선을 환자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하려 한 오만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이 환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최선의 수술 방법 이전에는 덜 완벽해도 오래된 수술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옛날 수술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수혈 없이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애양병원에서 정년하고 3년 더 근무하다가 2019년 용인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여 지금도 환자를 보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치료하던 한센병 환자로 수술이 필요한 분, 소아마비 환자,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한 환자와 예전부터 아는 분들이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척추결핵 환자는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찾아와 옛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서울대라는 훌륭한 울타리 안에서 지냈지만 이제 졸업하여 울타리 밖의 여러 환경과 경쟁하며 생존하여야 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선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듣고 이해하며 서로 화합하여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갈수록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이 사회의 필요한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주위가 화평케되는 peace maker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속한 사회에서도 환영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영광된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